

인권에 대하여

브라이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을 잇는 일을 사업으로 하여 전개해 왔습니다.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스테이크홀더와의 관계의 토대가 되는 것이 인권 및 다양성의 존중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 공헌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국제 인권 장전' 및 국제 노동 기구(ILO)의 '노동에서의 기본적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에 규정된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을 지지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용 범위]

인권 존중에 관한 방안은 브라이자의 모든 임원과 종업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는 인권 존중에 관한 방안에 대한 지지를 기대합니다.

[인권 과제에 대한 노력]

브라이자는 이하의 인권 과제를 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거래 금지
브라이자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 차별, 괴롭힘 배제
브라이자는 인종, 피부색, 연령, 성,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언어, 종교, 정치상의 의견, 출생지, 신체 상황의 차이에 따른 차별과 괴롭힘을 배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개인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직장에서의 안전 위생
브라이자는 종업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직장 환경을 정비합니다.
- 노동 시간 및 임금
브라이자는 노동 시간과 최저임금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 사생활 보호
브라이자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합니다.

인권 과제에 대한 노력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사 임직원에게 대해 적절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인권 듀 딜리전스]

브라이자는 인권 존중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인권 듀 딜리전스의 구조를 구축하여 계속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자사 사업 활동에서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통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에 대하여'의 승인]

'인권에 대하여'는 브라이자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정일 2020년 3월 26일

브라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요시하라 토시오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지지된 '인권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 '구제 조치로의 접근'의 3가지로 분류된 국제적인 틀입니다.